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과 수원형 중립형 R&D허브 구축 방향

김유빈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부 교수 최석환·김진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기술로,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 미국은 CHIPS Act로 6,000억 달러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중국은 1,400~1,500억 달러를 투입해 자급화를 추진하는 등 블록화가 가속화됨
- 한국은 메모리·파운드리 분야 강점에도 불구하고, IP·EDA·팹리스·첨단 패키징 등 핵심 영역에서 미국·대만 대비 뚜렷한 취약점이 존재함

경기남부에 메가 반도체 생태계 형성, 수원의 포지셔닝이 필요한 시점

- 용인(제조 거점)·화성(첨단공정·파운드리)·평택(메모리 양산)·안성(소부장)으로 역할 분담이 사실상 완성되어, 수원이 제조·생산 경쟁에 뛰어드는 전략은 실효성이 낮음
-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 한국나노기술원, 성균관대·아주대 등 우수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제조' 대신 'R&D·검증 허브'로의 전환이 전략적으로 유리함

정책제언

수원형 반도체소부장기술연구센터, 중립형 R&D 허브 구축

- 중앙정부 주도의 ASTC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이 수원시가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중립형 R&D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
- 공동연구(소부장 원천기술 개발)·실증(테스트베드)·인력양성의 3대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

수원의 중립성을 핵심 차별점으로 삼아 메가클러스터의 연결 허브로 자리매김

- 수원은 삼성·SK하이닉스의 공급망 내 기업 간 기술 충돌 없이 공동연구가 가능한 중립 공간으로, 소부장 기업의 해외 검증 의존 및 기술유출 위험을 해소하는 구조로 설계
- 용인·화성·평택의 양산 역량, 안성의 소부장 특화 인프라, 판교의 팹리스 설계 역량을 수원의 소부장 원천기술 R&D·검증·인력양성이 뒷받침하는 구조로 기능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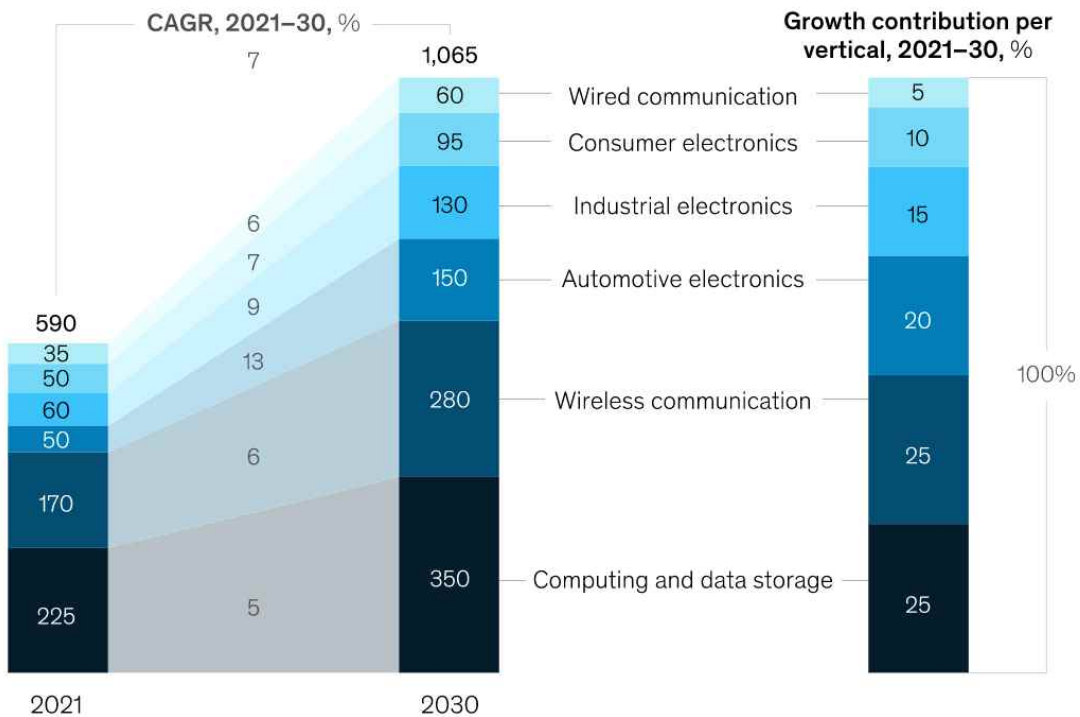
1. 들어가며: 왜 지금 반도체 전략인가

□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출발점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기술」

- 반도체는 더 이상 첨단 산업의 한 축이 아니라, 모든 미래 산업의 출발점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기술로 자리 잡음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30년 약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자동차(자율주행, e-모빌리티), 컴퓨팅 및 데이터 통신(AI·클라우드), 무선통신(5G, 스마트폰 보급 확대)의 3대 산업이 반도체 산업 성장의 70%를 주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률, 맥킨지>

(단위 : 10억 달러)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분업」 체제에서 「자국 중심 블록화」로 재편되는 반도체 산업

- 시장변화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자국 중심으로 점차 재편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반도체 진흥법(CHIPS Act)을 통해 6,00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 유도
 - (중국) 약 1,400~1,500억 달러를 투입해 자급화 추진 중
 - (일본·EU) 자국의 제조 역량 복원

□ 수원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반도체산업 전략 마련 필요

- 인접한 용인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중이며, 안성은 소부장 특화단지, 판교는 팹리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 수원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가졌지만, 정작 반도체 제조의 무게중심은 화성, 용인, 평택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의 새로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필요

3.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위기감

□ 미국 VS 중국의 반도체 글로벌 주도권 경쟁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섯다운은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EU·미국 자동차 업체의 90%가 생산을 중단했고, 국제 운송비는 330% 폭등
- 이를 계기로 미국은 '설계만 잘하면 된다'는 기존 전략을 폐기하고, 자국 내 제조 역량 복원에 사활을 걸음
 -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은 고부가 가치 제품 설계에 집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GVC(Global Value Chain) 변화는 미국 반도체 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냄
 - 반도체 진흥법, 미국 파운드리법 등을 통해 미국의 자국 반도체 공급망 복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 TSMC에 대한 안보적 위험 →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산업 확대
- 중국은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 맞서 자급화 노선을 더욱 강화
 - 미국의 제재로 ASML의 EUV 장비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급화 노선 강화
 - 중국은 미국의 대중경제 분야(설계 툴, 제조 장비, 소재)를 중심으로 자체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제재를 우회하여 한국, 일본 및 유럽과 기술 협력 및 기업유치·인수 확대
 -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도 높은 기술 장벽, 미국의 강력한 제재(장비 사용 불가 등) 등으로 한계를 보임

<중국-미국의 반도체 글로벌 주도권 경쟁>

구분	미국	중국
정부 직접투자	~527억 달러(Chips Act)	1,400~1,500억 달러
민간투자 유도	6,000억 달러 이상	제한적
투자 방식	민간 중심	국가 중심
최근 추가 투자	TSMC 등 초대형 투자	Big Fund III (475억 달러)
전략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	자급화, 기술 독립

□ 한국의 위기감: 흔들리는 메모리 우위

- 미국의 인텔을 중심으로 첨단 파운드리 역량을 공격적으로 키우는 가운데, 한국 메모리 산업이 그동안 누려온 '설계·제조 동시 강자'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 제기
 -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유지하여 2021년 이후 1000억 달러 이상 투자 중이며, 2024년 '파운드리' 재진출하고, 2030년 글로벌 파운드리 2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인텔의 인력규모(약 12.1만 명)는 삼성전자(약 6.4만 명)와 TSMC(약 5.9만 명)를 합한 것에 육박
-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후공정
 - 전공정의 미세화로 반도체 소자의 물리적 한계 도달로 새로운 소재, 소자 구조를 통한 기술 한계 돌파 노력과 더불어 HBM, 3D-IC처럼 칩을 '쌓아 올리는' 기술이 핵심이 되면서 본딩·열관리·휼(Warping) 제어 같은 후공정 기술이 곧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

□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국의 약점

- AI 반도체 시장은 HBM에서 CXL, PIM(Processing-In-Memory)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선도하고 삼성전자가 추격 중이지만 그 외 영역은 매우 취약
 - IP 분야 : Synopsys, Cadence, ARM 등 미국·일본 기업이 독점, 한국은 역할 미비
 - EDA 툴 : Synopsys, Cadence, Siemens(Mentor) 미국 3사 독점
 - AI 팹리스(서버용) : NVIDIA, AMD, 인텔이 시장 장악, 한국기업 존재감 미미
 - 첨단 패키징 : 대만·미국 대비 격차 존재
- 미국, 중국, EU, 일본이 반도체를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안보 차원에서 자국 중심으로 묶어가는 「블록화」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핵심 기술을 가진 국가만이 살아남는 새 질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

<한국의 AI 반도체 생태계 및 글로벌 대비 수준>

● 독과점체제, ① 상당한 수준, ○ 역할 미비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한국		
AI 반도체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놉시스 ● • 케이던스 ● • 램버스 ① • SST ① • CEVA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리실리콘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러데이 ① • Alchip ① • in-house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칩스앤미디어 ○ • 오픈엣지 ○ • 퀄리티스 ○ 	
	E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놉시스 ● • 케이던스 ● • 지멘스(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대구천 ① • 가이룬전자 ○ • 광리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켄 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움 ○ • 알세미 ○ • 인에이블 디자인 ○ 	
	팹리스	서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 ● • AMD ● • 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웨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피온 ○ • 퓨리오사 ○ • 리벨리온 ○
		엣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퀄컴 ● • 브로드컴 ● • 마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곤 ● • 윌 세미컨덕터 ● • 맥스센드 테크놀로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니 ● • 르네사스 ● • 도시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텍 ● • 노바텍 ● • 리얼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 • 답엑스 ○ • 모빌린트 ○
	디자인하우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리실리콘 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UC ● • 알파칩스 ● • AVne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디 테크놀로지 ① • 에이직랜드 ① • 가온칩스 ① 	
	파운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텔 파운드리 ● • 글로벌 파운드리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IC ① • Huaho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피더스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MC ● • UMC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 • DB하이텍 ○ 	
	첨단 패키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CET ● • TJS ① • TSHT 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 ● • SPIL ● • PTI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반도체 ① • 하나마이크론 ① • 네패스 ① 	
메모리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MTC ① • 창신메모리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옥시아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 • SK하이닉스 ●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4.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 한국은 메모리·제조공정 강점에도 소부장 원천기술 R&D 및 실증 보완 시급

- 한국은 향후 10년간 약 12만7천여명의 신규 반도체 인력 수요가 예상되지만, 인력 공급은 연간 5천여 명 수준에 불과함
 -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어렵게 양성된 숙련 인력마저 상위 업체로 이동하면서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가중
-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 국산화율은 약 18%, 소재는 50% 수준에 그침
 - EUV(ASML 독점), 이온주입(AMAT, Axcelis 등) 핵심 장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
-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양산에 가까운 환경에서 「트랙 레코드(검증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 마련 시급
 - 일반적으로 칩메이커는 양산 적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부장을 투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공정 관리 및 수율 상의 불확실성을 허용하지 않음
 - 또한 소부장 생태계는 세계 1등 수준의 최고 경쟁력을 기업만 양산 적용 가능성을 가지는 특징으로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도 국산화가 매우 어려움
 - 이러한 환경에서 소부장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R&D 및 테스트베드 마련 시급

□ 글로벌 사례 : ‘중립형 R&D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

- 글로벌 주요국은 제조시설 유치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연구·검증·인력양성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
 - 이는 첨단 반도체 경쟁력이 개별 기업의 생산능력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글로벌 중립형 R&D 플랫폼 사례>

국가	명칭	설립시기 (투입예산)	내용
미국	NSTC(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국가반도체기술센터)	2024년 (약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가 설립하고 상무부가 관리하는 제조 인프라와 독립된 국가적 연구 허브 ▪ 소부장과 학계가 IP 분쟁 없이 공동연구 할 수 있는 기관
일본	LSTC(Leading-edge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첨단반도체기술센터)	2022년 (약3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설립된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컨소시엄 ▪ 2nm 이하 차세대 공정 기술 확보 및 양산 연계 기능
벨기에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er, 반도체종합연구기관)	1984년 (연간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중립형 반도체 연구소 - 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 등이 설립한 유럽 최대 규모의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소 ▪ 국제 공동연구, 대학 및 기업 간 협력연구, 반도체 교육 기능 수행

주) 2nm: 반도체 칩 내부의 트랜지스터 회로 선폭을 2nm(nm은 10억분의 1미터)수준으로 미세화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 한국의 대응 : 「양산연계형 미니팹」 + 소부장 원천기술 R&D 및 실증

- 총사업비 9,060억원 규모의 「양산연계형 미니팹(Trinity Fab)」 구축사업이 2024년 11월 예타 통과해 용인에 건설 중
 - 다만, 특정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보다 본질적인 「중립형 R&D 플랫폼」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2024년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ASTC)」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기획으로만 그친 상황
 - 설립 추진 당시 투자 주체를 구하는 문제에서의 난항과 트럼프 행정부 2.0 출범에 따른 미국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획 이후 실행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R&D 중립지대」를 통한 소부장 원천기술 연구 수요는 현재도 매우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음
- 소부장 원천기술 R&D 허브 구축의 최적기
 - ASTC 기획 이후 소부장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원시가 「수원형 반도체 소부장기술연구센터」 설립으로 중립형 R&D 플랫폼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5. 수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 수원형 반도체소부장기술연구센터 구축

□ 수원시를 둘러싼 환경 변화 : 경기남부의 메가 반도체 생태계 형성

- 수원시 인접 지역에는 수원이 따라잡기 어려운 규모의 반도체 인프라가 동시다발적으로 구축되고 있음
 - 지자체 단위의 경쟁을 넘어 '경기 남부 메가 클러스터'라는 거대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되는 중
 - 거대한 생태계가 정상 가동되면 전 세계 반도체 칩의 약 50%가 용인 메가 클러스터에서 생산될 예정

<주변 지역별 특화 영역>

지역	특화영역	내용
용인	메모리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제조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1983~, 메모리-메인스트림 공정), 삼성 NRD-K(20조원 민간투자) ▪ (처인구) 삼성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777만㎡, 360조원, 시스템반도체 팹 6기), SK 반도체클러스터
화성	첨단공정(EUV)-파운드리 양산 + 글로벌 장비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메모리·시스템 LSI·반도체연구소, EUV 전용 V1 라인, 3nm 첨단공정) ▪ ASML 화성캠퍼스 (2025년 준공, EUV 장비 재제조·트레이닝 센터)
평택	최첨단 메모리 양산 단일 최대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87만평, 단일 반도체 사업장 세계 최대, 3D V낸드·첨단 노드 양산)
안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성남 판교	팹리스(설계)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안),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 반도체 「제조·생산 영역」의 무게중심이 용인·화성·평택 중심으로 사실상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수원시는 중복된 전략보다는 이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수원시의 입지적 강점과 한계

- (입지적 강점) 글로벌 앵커기업의 입지, 풍부한 R&D인프라,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큰 강점
 - 글로벌 앵커 기업의 본거지: 삼성전자 본사 입지 (단, 본사 자체는 「반도체 제조 거점」이 아닌 사업지원 거점)
 - 풍부한 R&D 인프라와 우수 인재: 성균관대·아주대·경기대 등 우수 공과대학의 인적 자원, 한국나노기술원·차세대융합기술원 등 광교 테크노밸리 첨단기술 연구기반 보유, 1,114개 연구소·기업 내 연구전담부서 입지(2025년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지리적 이점: 서울 및 수도권의 연구·투자·정책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 수도권 고급 인력 흡수 용이, 인근 반도체 생태계와의 연계 최적 입지
- (입지적 한계) 산업 인프라의 부족,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기업유치 제한은 한계점으로 나타남
 - 산업 인프라의 부족: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제조 기반 공간이 인근 도시 대비 부족
 - 기업 도시로서의 매력도 저하: 성남·화성·용인 대비 우량 강소기업·외투기업의 입지 매력 약함
 - 인근 지자체와의 극심한 주도권 경쟁: 용인(클러스터)·화성(제조)·안성(소부장)이 이미 영역 선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공간 확장의 한계, 기업 신규 유치의 구조적 제약

□ 수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방향 : '수원형 반도체소부장기술연구센터', 중립형 R&D허브 구축

- 반도체 '제조'가 아닌 '제조에 필요한 소부장 원천기술 R&D 및 실증 환경 구축'으로 패러다임 전환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병목구간은 「소부장 원천 기술」과 「개발된 기술의 테스트베드」의 부재
 - 수원시는 대규모 제조 부지를 조성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강점을 지니고 있음
 - 한국나노기술원 등 기존 공공팹 인프라 : 이미 1,615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자산
 - 차세대융합기술원, 우수 공과대학을 포함한 R&D 혁신 역량
 - 인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소부장 기업 및 미니팹(Trinity Fab) 양산검증 시설과의 기능적 연계 가능성
-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수원형 반도체소부장원천기술연구센터' 조성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수원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면 토지입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산학연이 공동으로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연구·실증하는 중립형 R&D 플랫폼을 빠르게 구현 가능
- '공동연구(원천기술)-실증(테스트베드)-인력양성' 3대 기능 중심 설계
 - 단순한 R&D 시설이 아니라, 메가 클러스터의 기술 병목을 해소하는 3대 핵심 기능 중심으로 설계

기능	주요내용	내용
공동연구	팹리스·파운드리·소부장 기업이 지식재산권 충돌 없이 협력할 수 있는 공동연구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형 R&D 공간 ▪ 기업 간 기술 노출 부담을 낮추고 공동연구 참여 확대
테스트베드	직접 제조가 아닌 검증 공간 구축, 소부장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 기술 성능평가, 신뢰성 검증, 공정 정합성 검토 지원 ▪ 해외 검증 의존도와 기술 유출 위험 완화
인력양성	NSTC, LSTC와 같은 중립형 연구 플랫폼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기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실증형 교육체계 ▪ 첨단공정, 장비, 소재, 설계검증 분야 실무형 인력 양성

□ ‘중립성’은 수원이 가진 결정적 차별점 : 경쟁이 아닌 ‘역할 분담’으로

-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기점으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두 그룹이 같은 공간에서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양사의 영업 비밀과 IP 충돌 우려)
 - 용인·화성·평택의 제조거점은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폐쇄성이 높고, 소부장 기업은 독립적인 시험 검증 공간 없이 해외 검증에 반복 의존하면서 기술 유출 위험과 일정 지연, 양산 전환 비용 누적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음
- 수원시는 특정 대기업의 거대 제조 라인이 없어 ‘중립형 협력’이 가능한 구조이며, 경기남부 메가 반도체 생태계 중심에 위치해 중립형 R&D허브로서 최적의 입지
 - 판교(팹리스)·용인/화성/평택(IDM·파운드리)·안성(소부장)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
 - 특정 대기업의 거대 제조 라인이 없어 「중립적 협력」이 가능한 구조
 -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보다 토지·입지 부담이 낮고, 기존 대학·연구기관·기업 연구소와의 연계성 우수
 - 경기 남부 제조거점과 서울권 및 수도권 연구·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용이한 지리적 중심지
- 수원시의 전략은 인근 지자체와의 직접 경쟁이 아닌, 메가 클러스터 내에서의 ‘특화된 보완재’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용인과의 관계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삼성·SK하이닉스)와 미니팹(Trinity Fab)의 양산-검증 역량을 수원의 원천기술 R&D가 뒷받침
 - 화성·평택과의 관계 : 화성(EUV, 첨단공정), 평택(최첨단 메모리 양산)의 양산 역량과 수원의 R&D 인력양성 결합
 - 안성과의 관계 :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의 양산 인프라와 수원의 R&D 인프라를 「설계-검증-양산」으로 연계
 - 판교와의 연계 : 판교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과 수원의 IP·EDA·표준화 R&D 결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Brief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이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위원장 정재진 |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타균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